

“연말 구매혜택 잡으세요” 완성차 업체 할인전쟁

소비세 인하 종료 앞두고 판매량 확대 사활
최대할인·사은품제공·유류비지원 등 풍성

자동차업체가 연말을 맞아 막바지 판매량 늘리기에 나섰다. 특히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를 앞두고 연중 최고 수준의 할인행사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완성차업체에 따르면 현대차는 승용차와 레저용차(RV) 전 차종을 대상으로 개소비세 인하에 더해 추가 1.5% 할인, 1.5% 저금리를 적용하는 ‘트리플 기프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단 9월 이전 생산분에 한정되며 제네시스 브랜드와 전기차(EV), 넥쏘, 투싼 등 일부 차량은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는 또 승용·RV 전 차종을 오는 14일까지 출고하는 고객에게 5만원을 추가할인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모닝과 K5, 2018 K7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조기구매 할인과 초저금리 할부, 출고사은품 제공 등 세 가지 혜택 중 한 가지를 제공하는 ‘2018 라스트 찬스 특별이벤트’를 한다.

조기구매 할인을 선택하면 출고일에 따라 모닝은 50만~70만원, K5와 K7 가솔린 및 디젤은 130만~150만원, K5와 K7 HEV와 PHEV는 70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초저금리 할부는 14

일까지 출고한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에게 0.1% 저금리와 40만원 또는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출고사은품을 선택할 경우 12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큐브’와 170만원 상당의 ‘에어드레서’를 차종에 따라 증정한다.

한국지엠(GM)은 쉐보레 차량 구매 고객에게 특별할인이나 공보할부, 재구매 할인, 유류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더해 최대 630만원을 할인해준다.

차종별 최대 할인금액은 스텔라 2019년형 270만원, 말리부 2018년형 560만원 등이다.

쌍용차는 티볼리 브랜드 200만원, G4 렉스턴 360만원, 코란도 C 390만원 등 일부 모델을 최대로 할인한다. 오는 14일까지 렉스턴 스포츠를 제외한 전 차종 구매 고객은 10만원의 추가 할인이 받을 수 있다.

G4 렉스턴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특별할인을 제공하며, 10년 이상 노후차를 보유한 고객이 G4 렉스턴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엔은 마스터와 전기차를 제외한 전 차종 구매 시 개소비세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거나 추가 옵션을 제공한다.

개소비세 지원 혜택을 적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SM6·QM6 S-링크 패키지 또는 패키지 II 무상 장착, SM5 V7 내비게이션 무상 장착, SM3 V7 내비게이션 또는 스마트 커넥트 II 무상 장착의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송수영 기자



12일 현대차 그룹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 기공식을 열었다. /현대차 그룹 제공

수소연료전지공장 신축공사 기공식

수소사회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현대차그룹이 수소전기차 선두 주자로 발돋움 하고 있다.

12일 현대차그룹은 수소 및 수소전기차 중장기 로드맵인 ‘FCEV 2030’을 공개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충북 충주에 위치한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 기공식을 열었다.

공장이 완공되는 2022년에는 현재 연 3,000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능력의 13배 수준인 연 4만대 규모로 생산능력이 확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 국내에서 연 50만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소전기차 리더십을 확보해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와 오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R&D) 및 설비 확대 등에 총 7조 6,000억원을 투자하고 5만 1,00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방침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타 완성차·선박·철도 등 운송분야와 전력생산 및 저장 등 발전분야에 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는 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년 동안 3,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해 총 1,30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

수소전기차의 대중화는 침체된 완성차와 부품업체에 새바람을 불것으로 보인다. 수소전기차는 부품 국산화율이 높아 차량 보급이 확대될수록 국내 부품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속화가 가능하다.

CASE(커넥티드·자율주행·공유·전동화)로 요약되는 급격한 미래 자동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차량 대비 부품 감소율이 낮아 기존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유지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현대차 그룹의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0년 국내 50만대 수소전기차 생산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그에 따른 연간 경제효과는 약 25조원, 간접고용을 모두 포함한 취업유발 효과(한국은행 차량용 취업유발계수 적용)는 약 2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수소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은 99%에 달할 정도로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크다”며 “현대차그룹은 수소경제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영 기자

체납차량 번호판 뜯는다

오늘부터, 자동차세 3건·과태료 30만원 대상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오는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체납이 있는 대포 차량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298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자체가 부과한 것만 따져도 2,26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는 60만3,098대이고 그 액수는 약 4,04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한다.

단속에 걸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안 내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될 수 있고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다. /연합뉴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회공헌 첫 발

대학생 ‘퓨처 모빌리티 챌린지’ 개최

행사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교통체증, 교통사고,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초연결·초융합 시대를 맞아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디지털화’ 등 두 개 부문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결선은 전문가 멘토링 후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에는 총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독일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턴십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도 부여된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한 관계자는 “교육과 문화에 집중한 투모로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및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첫발을 내딛는다.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비영리기관인 한국사회투자협회와 협업해 진행할 사회공헌 이니셔티브 ‘투모로드’를 공개했다.

투모로드는 내일(Tomorrow)과 길(Road)의 합성어로, 젊은 인재들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며 4차산업의 길을 선도해나가기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퓨처 모빌리티 챌린지’를 개최한다.

타이어 만드시 얼라인먼트합니다.
회전하는골프볼 만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얼라인먼트된 골프공

엑스페론

CHECK! 골프공은 완전한 구체가 아닙니다.
 골프공은 무게중심이 튼튼해있습니다.
 골프공은 속이 더 중요합니다.
 실력보단 골프공을 먼저 의심하세요.

특허청 INNOBIZ USGA R&A ISO 9001

www.xperon.co.kr | 02-2070-5009 | trade@xperon.co.kr